



사진 / 경기도문화의전당 제공

‘450년 전통’ 독일 명문악단 이끄는 26살 이지윤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최연소 악장...“책임감 매우 커요”

글 임수정 기자

"오케스트라 단원 80~90%가 독일인인 데다가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탓에 단원들과 공통점을 찾기가 꽤 어려웠습니다."

독일 명문악단 베를린 슈타츠키펠레의 최연소 악장으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26)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작년 5월 중신 베를린 슈타츠키펠레의 음악감독 다니엘 바렌보임이 참석한 최종 오디션에서 최연소 악장으로 선발돼 작년 9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단원 중에 교수님들, 심지어 제가 다니던 학교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그들이 제 동료가 된 거죠. 게다가 제가 악장으로 선임되면서 열떨결에

가장 높은 서열에 있게 된 거잖아요. 처음엔 너무 어색하고 고민도 많았어요. 그래도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하고 항상 조연에 귀 기울이며 노력하니 지금은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연주가 끝난 뒤 맥주 한 잔씩도 같이 마시는 사이가 됐어요."

1570년 창단돼 약 4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베를린 슈타츠키펠레는 멘델스존, 바그너, R 슈트라우스 등 작곡가들이 음악감독으로 활동했고 푸르트벵글러, 카라얀 등 전설적 지휘자들이 이끈 유서 깊은 악단이다. 1992년부터는 거장 바렌보임이 이끌며 그 전통과 명성을 잇고 있다. 2013년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콩쿠르, 2014년 윈저 페스티벌 국제콩쿠르, 2016년 칼 닐센 국



사진 / 경기도문화의전당 제공

제 바이올린 콩쿠르 등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솔리스트 길을 걷던 이지윤이 오케스트라 합류를 결심한 것도 "베를린 슈타츠키펠레였기 때문"이다. 그가 오케스트라 오디션에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다른 오케스트라였다면 지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렌보임의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오디션을 봤어요. 바렌보임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음악가 중 제일 비상한 사람이에요. 또 오페라와 교향곡 연주를 제대로 병행하는 유일한 악단이며 독일 최고 오케스트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이지윤뿐 아니라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윤과 김수연이 각각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과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악장으로 선임되는 등 최근 젊

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유럽 명문악단 악장을 잇달아 맡으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악장은 지휘자를 보좌해 오케스트라의 음악적 결정을 하는 리더인 만큼 한국 바이올린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준 연이은 낭보였다. 동시에 솔리스트·콩쿠르 입상에만 한호하던 국내 클래식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지윤은 "악장이라는 직업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유럽 클래식계 커뮤니티에 들어왔다는 것"이라며 "물론 이에 따르는 책임감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어쩌면 콩쿠르 우승보다 더 힘든 게 유럽 본토에서 연주자로 자리 잡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콩쿠르는 우승한 당시에 잠깐 화제가 되다가 대부분 금방 잊히잖아요. 그러나 명문 오케스트라 악장이자 얼굴로 유럽 현지 관객들을 꾸준히 만나다 보면 유럽에서도 한국 연주자의 가치를 훨씬 높게 평가해줄 겁니다."

그는 솔리스트로서의 활동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악장 3인 체제로 운영되는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특성상 양쪽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우크라이나 '올해의 외교관상' 이양구 대사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할 적기”

글 왕길환 기자

"태권도 인구 2만여 명, 고려인 동포 3만 명, K-팝 팬 상당수, 삼성·현대·기아·포스코 등 한국 우수 기업의 진출... 지금, 우크라이나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해 있습니다."

이양구 우크라이나 대사가 지난 3월 말 현지 민간재단인 '올해의 인물'로부터 '2017 올해의 외교관상'을 받았다.

이 대사는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2014년 크림사태와 지금도 진행 중인 동부 분쟁, 국내총생산(GDP) 15% 하락 등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교역은 줄었지만 2016년부터 이곳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고, 유럽 통합을 위한 개방정책도 강력히 펼치고 있다"며 "지금 이 나라에 진출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도 국가 발전을 해 온 한국은 이 나라에서 굉장한 모델이 되고 있

으며 현재 '디지털 우크라이나'와 '혁신'을 기치로 내건 이 나라 정부는 한국을 모범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가 받은 '올해의 인물상'은 1995년 제정됐고, 이 가운데 '외교관상'은 2001년부터 추가됐다. 2006년 허승철 전 대사가 첫 수상한 데 이어 이 대사는 12년 만에 단독으로 받았다.

이 대사는 2년여 재임 기간에 경제포럼(5회), 안보포럼(3회)을 열었고, 정부 간 경제협약체를 구성하는가 하면 지난해 양국 수교 25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학술·스포츠 등의 행사를 개최해 양국관계를 증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양국 경제협력과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농업 프로젝트 추진, '자전거 카리반' 등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자전거 카리반'은 지난해 7월 24~30일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클 선수들을 초청해 일주일 동안 키로보그라드·니콜라예프·헤르손·오데사·키예프 등 6곳을 자전거를 타고 방문하며 교류한 행사였다.

한국에는 우크라이나를, 우크라이나에는 한국을 알린다는 의미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한다는 취지도 있었다.

이 대사는 "개인보다는 우리 대사관 활동에 대한 인정이고, 우크라이나 파트너들과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좋아하는 훌륭한 파트너들이 함께 만들어 낸 협업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보다 더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고 소감을 털어냈다.



"인구 4천500만 명의 이 나라는 세계적인 농업 대국이자 IT 대국이고 우주·항공 대국이다. 무엇보다도 유럽연합과 FTA가 체결돼 주변 시장도 10억 명 정도 확보하고 있어 우리가 진출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는 구체적 진출 유망 분야로 농업을 추천했다. 현지에서 적당한 면적의 땅을 확보해 영농과 농산업,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유통, 물류를 망라하는 '농업 밸류 체인'을 구현한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두심 “중국 팬이 불러주면 기꺼이 달려갈 것” 베이징영화제서 중국 관객들과 대화

글 김진방 베이징 특파원

베이징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영화 '채비'의 주연 배우 고두심이 4월 16일 중국 베이징 UME국제극장에서 중국 관객들과 만났다.

고두심은 이날 영화 상영이 끝난 뒤 관객들과의 대화를 진행하며, 영화와 자신의 연기인생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갈등으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내려진 가운데 진행된 행사에는 밤늦은 시간임에도 전체 좌석 150석이 가득 찼다.

고두심은 '어머니 역할을 많이 맡아왔는데 이번 영화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어머니

역을 많이 했고, 작품 속 아들딸들은 대부분 큰 인물이 됐다"면서 "이번 영화는 장애인 자식을 둔 시한부 어머니를 주제로 한 영화이고 가정의 중요성을 잘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고두심은 장애인 어머니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묻자 "한국 어린이 재단의 일원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도 많이 해봐서 연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며 "하지만 연기하면서 마음이 아주 아팠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 영화에 출연할 생각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분이 불러준다면 기꺼이 달려갈 수 있다"면서 "이번 영화제에 초청된 영화 중 중국과 한국영화가 가장 호흡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한국영화가 베이징영화제에 많이 초청됐으면 좋겠다"고 흔쾌히 대답했다.

김현석 감독의 영화 '채비'는 장애아들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야 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이 영화를 본 중국 관객들은 배우들의 절절한 연기에 눈시울을 붉혔다.

4월 15일 개막한 베이징영화제에서는 홍상수 감독의 '클레어의 카메라'와 '그 후', 류승완 감독의 '군함도', '김현석 감독의 '아이 캔 스피크' 등 총 7편의 한국영화를 상영했다.

사드 갈등으로 지난해 베이징영화제에 한국영화가 한 편도 초청되지 못한 가운데 2년 만에 중국 관객들에게 선보인 한국영화 대부분이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흥행 가도를 달렸다. ①